국 제 수 산 월 간 동 향

2022. 10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목 차

1. 아일랜드 어민 검색관 폭행으로 기소 ····· 3

2. 러시아 수산물 가공업체 학교에 수산물 공급 합의 ····· 4

3. 세계 인플레의 영향으로 베트남 수산물 수출 급감 ····· 6

4. 노르웨이-러시아 대구 쿼터 축소 합의 ····· 7

5. 해양보호구역 설정 이후 하와이 참치 어획율 증가 ····· 9

6. MSC, 참치 어업 인증 기준 강화 ····· 11

1 아일랜드 어민 검색관 폭행으로 기소

□ 불법 어획된 대서양 연어 보유, 검색관의 귀항 명령도 무시

- ㅇ 아일랜드 어민 세 명이 불법 어업물에 대한 승선 검색을 시도하는 검색관들에 불법감금, 폭행, 업무방해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 ㅇ 동 어민들은 불법으로 어획된 대서양 연어를 소지한 죄도 추가되어 각각 징역 6개월과 2,500 유로(약 3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짐

- ㅇ 2020년 7월 아일랜드 수산청 검색관들은 세 어민이 대서양 연어 불법 어획물을 보유한 듯한 의심이 들자 아일랜드 북서 연안에 위치한 Belderrig Pier에 정착해 있던 해당 어선에 승선을 시도하였음

  - 하지만 어선에 있던 세 명은 검색관들의 승선을 막으려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음

- ㅇ 어민의 공격으로 검색관 한 명은 배에서 떨어졌고, 두 명은 승선한 채로 어선이 출발하였으며, 세 명의 어민은 귀항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음

  - 하지만 결국 항구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었고, 입항과 동시에 세 명의 가해자는 체포됨

- ㅇ 아일랜드 연안어업청(Inland Fisheries Ireland)의 O'Donnell CEO는 "중대 불법 어업단을 막고 정의를 실현하였다"며 검색관들의 용기를 칭찬함

- ㅇ 아일랜드 연안어업청은 지난 20년간 자원량이 줄어들고 있는 대서양 연어를 보호하고 있으며,

  - 아일랜드 강으로 회유하는 대서양 연어 개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

※ 출처: SeafoodSource[1)]

1)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jail-for-irish-salmon-poachers-who-assaulted-inspectors

2 러시아 수산물 가공업체 학교에 수산물 공급 합의

□ 러시아 정부의 국내 수산물 소비증가를 위한 계획의 일환

○ 러시아 수산물선주협회(Fishery Shipowners Association (FSA))와 사회시스템영양 산업연합(Industry Union of Social System Nutrition (IUSSN))이 러시아 학교에 수산물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음

○ 2022년 9월 브이글로벌수산포럼(V Global Fishery Forum)에서 진행된 서명식에서 FSA 협회장 Alexey Osintsev는 두 기관이 러시아 학교에 부가 가치 수산물(value-added seafood products)-주로 대구 필렛 및 다진고기(mince)-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 말하였음

- 협회장은 러시아 학교의 필렛 및 다진고기 연간 잠재적 수요가 30,000톤이라 말하며, 이는 러시아의 가공된 대구 연 생산량의 약 25퍼센트를 차지하는 양이라 설명함

○ 러시아 학교들은 현재 러시아 식품 구매 프로그램의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

○ FSA에 따르면 본 프로그램은 국내 어류 소비 증진을 목표로 하며, 러 연방정부와 수산업계가 함께 주력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IUSSN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기관들에 식품을 공급하는 기업들과 협력하기로 함

○ FSA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학교에서 섭취되는 수산물의 약 15퍼센트는 러시아산이 아닌 수입 수산물이며,

- 품질 좋은 대구 필렛과 다진고기를 구입할 수 있음에도 학교들은 냉동 어류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 러시아 학교에서 현재 섭취되는 어류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산 수산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러시아 수산 가공업자들은 생산 증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가공 수산물은 러시아 총 수산물 생산량의 17퍼센트를 차지하

였고, 2021년에 그 비중은 29퍼센트로 증가하였으며,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시 2023년에는 65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출처: SeafoodSource[2)]

2)https://www.seafoodsource.com/news/business-finance/russian-pollock-catchers-get-boost-via-school-supply-agreement

3 세계 인플레의 영향으로 베트남 수산물 수출 급감

□ **주요 시장의 높은 인플레의 영향으로 세계 소비가 줄면서 베트남의 수산물 수출이 7개월만에 최저점을 기록하였음**

ㅇ 베트남의 9월 수산물 수출 가치는 약 8.6억 달러였으며 이는 8월 대비 13.7% 감소한 것임

- 미국과 수출은 지난달 대비 10.4% 감소한 약1.4억 달러를 기록함
- 일본의 경우 약 1.4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달 대비 18% 감소한 것임
- 한국 수출은 22.4% 감소한 7650만 달러를 기록함

ㅇ 유일하게 수출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으로 지난 달 대비 2.4% 증가한 1.4억 달러를 달성하였음

ㅇ 일반적으로 9월은 많은 국가들이 연말 연휴를 대비하여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지만 올해 수출 감소 트랜드는 이례적임

ㅇ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로 인하여 주요 국가들의 소비력이 감소하고 있음

ㅇ 베트남의 국내 새우 소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수산물 생산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 미국 시장의 경우 에콰도르 및 인도에서 새우를 수입하고 있으므로 저렴한 새우가 즐비함

ㅇ Minh Phu나 Fimex 회사와 같은 베트남의 주요 수산물 수출 기업들은 계약된 주문이 납품을 대기하고 있으나 상태이나 인플레이션으로 판매가 느려지면서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임

※ 출처: www.seafoodsource.com [3)]

3)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vietnam-seafood-exports-decline-as-inflation-bites

4 노르웨이-러시아 대구 쿼터 축소 합의

□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디지털 협상을 통하여 20203년 어업 협정을 타결하였으며 북동 북극(Northeast Arctic) 수역의 해양 관리 및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ㅇ 디지털 협상을 통하여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2023년을 위한 어업협정을 타결하였음
- ㅇ 어업협정은 북동북극 대구 쿼터 20% 축소에 대한 내용 및 과학적 권고가 포함되어 있음
- ㅇ 2023년 북동북극 대구의 총쿼터는 566,784MT로 설정되었으며 관리 규칙은 동일하게 연장되었음
  - 이 중 노르웨이의 2023년 쿼터는 260,782MT임
- ㅇ 해덕(Haddock)의 쿼트는 170,067MT이며 노르웨이의 쿼터는 84,177MT로 설정됨
- ㅇ 협상을 통하여 국가들은 2023년에 빙어(capelin) 어업을 재개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총쿼터를 62,000MT로 설정하였음
- ㅇ 넙치(Blue halibut)에 대한 2023년 총쿼터는 25,000MT이며 노르웨이의 할당량은 12,735MT임
- ㅇ 러시아가 노르웨이에 전배 받는 대구는 605MT로 줄었으며 넙치 전대 도한 240MT로 감소하였음
- ㅇ 두 국가는 새우(prawn)에 대한 관리 계획에 대하여 연구할 것에 동의하였음
- ㅇ 두 국가의 어업 협정에는 어업 방법의 기술적 규 및 조치 및 연구 협력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 ㅇ 현재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 참석이 임시적으로 거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양 연구 기관과

러시아 연구 기관인 VINIRO간의 양자 작업반을 통하여 협동 자원량 쿼터 권고를 검토할 것으로 보임

ㅇ 노르웨이는 올해 10월부터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일환으로 러시아 선박들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를 3곳(Kirkenes, Båtsfjord, Tromsø)으로 제한하였으며 선박 검색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음

※ 출처: www.seafoodsource.com [4)]

4)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norway-russia-agree-on-reduced-cod-quotas

5 해양보호구역 설정 이후 하와이 참치 어획율 증가

- 대규모 보호구역 설정이 상업적 가치 있는 어종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음. 연구는 10년간 어업 데이트를 토대로 하와이 제도 북서해역 해양보호구역 근처에서 두 개 주요 참치 어종의 어획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음.

- "이는 어류와 어민 모두에게 윈-윈 상황"이라고 Wisconsin-Madison 대학의 경제학자이자 10월 20일 발행된 Science지 논문의 공동저자인 Jennifer Raynor가 말했음.

- 하와이 대학에서 하와이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Kekuewa Kikiloi는 지난 20년간 주로 태평양에서 부상한 환경관리의 유형인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의 가치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세계 국가들은 2030년까지 자국 영토 및 바다의 30%를 보호하기로 약속하였음.

- 이전 연구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이 산호 및 랍스터와 같은 이동을 많이 하지 않는 어족자원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논증되었음. Ranor와 그녀의 동료들은 금어해역 설정이 회유성 어종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고 어업에 대한 낙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자 하였음. 연구자들은 생물 및 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에 설정되고 2016년에 확장된, 세계에서 가장 큰 금어해역 중 하나인 Papahānaumokuākea 국립해양구역을 살펴보았음.

- 연구팀은 주로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를 목표로 하는 하와이 심해 연승어업에 초점을 두었음.

- 연구팀은 2010년에서 2019년 말까지 어선에서 수집된 어획 데이터를 분석하였음. 그 후, 그들은 2016년 전후로 보호구역으로부터 600해리까지 다양한 거리에서의 어획율을 비교하였음. 그들은 보호구역의 확장 후, 어획율(1,000개의 낚시 투척시 어획된 어류 미수)이 증가하였고, 선박들이 보호구역에 가까운 곳에 위치할수록 어획율이 보다 많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음. 100해리까지의 거리에서는, 황다랑어의 경우 어획율이 54% 증가하였고, 눈다랑어는 12% 증가하였음.

- 캘리포니아 면적의 3배가 넘는 Papahānaumokuākea 국립해양구역의 규모와 형태가 아마도 긍정적 효과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동서로 2,000km인 보호구역은 열대 위도의 해역을 보호함. 이는 열대해역 범위 내 머물기 위해 동서축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황다랑어, 눈다랑어와 같은 열대 어류가 먼 거리를 이동하여도 조업금지 구역 내 머물 수 있게 함.

- Raynor는 또한 Papahānaumokuākea가 황다랑어의 산란장이라고 말함. 어류가 산란장으로부터 멀리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조업금지 구역은 어업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함으로써 어류가 군집하여 재생산하는데 기여함.

- 오클랜드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업감시 NGO인 Global Fishing Watch의 연구혁신 책임자인 David Kroodsma는 "이 해양보호구역으로부터 업계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하였음. 하지만 그는 덧붙이기를, 연구 결과가 세계 다른 곳에 대하여 일반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는 어업으로 낙수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해양보호구역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산타 바바라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해양생태학자인 Steve Gaines가 말했음. 그는 연구가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분명하게 제공한다"고 말했음.

- 토착 주민, 하와이주와 미국 정부에 의해 공동관리되는 Papahānaumokuākea는 토착 지식과 근대 과학을 연결하는 협업 관리전략의 사례라고 Kikiloi는 말함. 그는 이러한 접근이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곳에서도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출처: www.nature.com [5)]

5)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2-03352-w (2022년 10월 20일 기사)

6 MSC, 참치 어업 인증 기준 강화

- 해양관리협의회(MSC)가 어업 표준 버전 3.0을 출시하였음. 이로써 MSC 평가를 처음으로 받는 어업은 2023년 5월까지 새로운 표준에 맞출 것이 요구되고, 이미 인증된 어업은 6년 내 새로운 표준을 이행할 것이 요구됨.

- MSC 표준에 대한 검토 및 업데이트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고, 참치 어업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가짐.

- MSC가 발간한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47%가 넘는 야생 상업적 참치 어획이 MSC 인증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연 2백만톤의 참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5년의 126개 브랜드에서 현재는 430개 이상의 브랜드가 MSC 라벨을 사용하고 있음. MSC는 이러한 성장에 기여한 회사들을 열거하였는데, Lidl Germany, Walmart, American Tuna, Bolton Group, Princes, 그리고 Tesco가 여기에 포함됨.

- 바다를 지키기 위한 MSC 미션의 일환으로, MSC의 "지속가능한 참치 핸드북"에 발간된 데이터에는 MSC 인증을 받기 위한 38개 조건들이 설명되어 있음. 어업 표준 버전 3.0은 참치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 발간된 "MSC 어업 표준 버전 3.0: 참치 어업"에 이것들이 담겨 있음.

- "새로운 MSC 어업 표준은 인증된 어업이 지속가능한 어업의 세계적 리더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인증된 참치 어업들에게는 이제 수확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련의 목표들을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고 MSC 과학 표준 관리관 Rohan Currey가 말했음. "이 요구들은 RFMO 관리 어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참치 어업의 관리로 가는 통일되고 강력한 동력을 만들 것이다."

- RFMO 관리 어업은 견고한 수확전략을 일정 기한 내 이행할 것이 기대된다고 MSC는 말함. 수확전략은 지속가능한 어획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관리자, 과학자, 업계간 협업인 관리전략평가를 통해 합의되어야 함.

- 새로운 요구의 결과,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관리어종들에 대한 수확전략을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33개의 참치 어업의 인증이 정지될 상황에 처했음. MSC는 해당 어업들에게 2023년 6월까지 인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것이 수확전략에 관한 WCPFC 협상 타결의 돌파구를 위한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수확전략 수립 외에도, 참치 어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류군집장치(FAD)에 대한 통제;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부수어획 통제; 및 어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감독, 통제 이행이 필요함.

- 인증된 어업에 대해서, MSC는 MSC 수확전략을 조기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MSC는 이것이 패스트 트랙 요구사항에 대한 기대를 증가시키겠지만, 조기 이행하는 어업의 경우, 그들의 목표어종에 대하여 수확전략을 수립하는데 5년이 부여될 것이라고 하였음. 조기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종을 목표로 하는 어업의 다수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차기 평가에서 MSC 표준 버전 3.0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됨.

출처: www.seafoodsource.com [6)]

6) https://www.seafoodsource.com/msc-fisheries-standard-version-3-0-approval-includes-major-considerations-for-its-tuna-fisheries (2022년 10월 21일 기사)